

<지난주 말씀>

▶성탄은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 속에 우리는 천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누구라는 천명이 있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천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의 천명, 나의 천명은 뭘까?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 천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절대망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망대가 가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위해 가는 모든 여정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사탄이 오만 재앙으로 발악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해도 우리는 어린양의 생명책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구원 명부에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작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책의 비밀을 발견하면 인생이 영생으로 바뀝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이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은 좀 열립니다. 무속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내가 인생인가, 영생인가? 이게 바로 천명을 찾은 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노력하는 숫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6입니다. 그게 666입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가는 사람은 777의 비밀이 열립니다. 아 나는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구나, 이걸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별의별 소리가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복음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미디어를 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말하면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얼마든지 프레임씌워서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적 근거를 가져다대도 복음이 아니면 관심조차 가지지 말라, 그게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은 확증된 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기회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천하 없어도 생각이 안 열립니다. 영적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겨둔 자가 맞느냐? 나는 순례자가 맞느냐? 나는 흑암 무너뜨릴 정복자가 맞느냐? 내가 이 현장에 파송된 자가 맞느냐? 나는 현장에 재앙 무너뜨릴 파수꾼이 맞느냐? 나는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 기를 들 사람이 맞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하시고 하나님께 이면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25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생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맺어야 하는 계약입니다.

<본론>**1.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명**

▶13장까지는 재앙이 나옵니다. 14장부터는 재앙을 견딘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어린 양의 비밀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1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계14:1)

시온 산에 어린양이 있고 십사만 사천이 서 있습니다. 그 십사만 사천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와 숫자가 있는 것과 완전 대조적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계14:2)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마치 거문고를 타는 듯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14:3)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명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거문고를 타는 소리와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14:4-5)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 사망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된 자

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2.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14:6)

이 십사만 사천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나라 5000종족을 살려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237나라 5000종족을 살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런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237나라 5000종족을 살리기 위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666의 직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777의 직장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777을 회복해라. 이게 아침, 낮, 밤에 회복해야 할 회복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아직도 답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해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은 237나라 5000종족에 전달해야 할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현장을 가든 그 현장이 다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다민족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민족이 있다면 말도 걸어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다민족을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와 있다가. 그것도 엘리트들이. 대학에 와 있는 엘리트들은 언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와 있는 다민족들도 언어가 됩니다. 한 국말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눈길을 돌려서 보길 바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14:7)

25년도가 가고 있습니다. 25년이 간다는 것은 심판의 날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날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심판의 날에 접해버리면 영원한 저주 재앙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란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을 능력에다 맞추면 안됩니다. 신처럼 나타나서 신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를 경배의 대상으로 맞추면 안됩니다.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14:8)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일어나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반드시 심판과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계14:9)

분명히 구분되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 인생을 살았던 666의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심판에서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택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만이 이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살릴 자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지대,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이 활동하지 않고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현장이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뀝니다.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내 빛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갈 때도 그 빛을 의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계14:10)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14:11)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24시 세세토록. 한번 받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밤낮 24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피어나고 불과 유황이 타오른다고 합니다. 불과 유황은 불구덩이죠. 그 불구덩이에서 밤낮 세세토록.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까요?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쉽니까? 숨 끊어지면 냉동되었다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이 아니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불과 유황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의 마지막 사명은 영원한 저주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생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

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3.심판주 그리스도와 전우주적 심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14:13)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산 자도 복이 있지만 이 언약을 가지고 죽은 자도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천국 환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례가 아니고 천국 환송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으면 성령이 보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 믿다가 죽은 일이 행한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계14:14)

드디어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심판주로 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모습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계14:15)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심판의 날을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계14:16)

낫을 통해 땅에 남은 모든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의 날, 끝날 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영생이 끝날 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바로 마지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심판,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포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계14:19)

이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마지막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달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계14:20)

이 말은 전 우주적, 완전한 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말 굴레에까지 달을 정도로 피가 났다고 합니다.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삶의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고 이 생각을 열어준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겠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안 열려요. 말귀를 못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잖아요. 다시한번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결론》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666의 숫자가 아닌 777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땅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순결한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237나라 5000종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심판의 때에 땅에 떨어지는 포도송이가 아니고 땅의 익은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미래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 곧 내 미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